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2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새 입법 심의회 30 일 이내에 주지사의 2019 년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점인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RHA)에 서명하겠다는 약속 완수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은 뉴욕 주민들이 보건 관련 결정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받을 두려움 없이 중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주법으로 성문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 입법 심의회 30 일 이내에 2019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점인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은 뉴욕 주민들이 개인적 보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의료 전문가들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 없이 중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생식권을 보호합니다. 해당 법 제정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에 성문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방 정부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및 여성의 생식권을 저하시키려는 시도에 직면하여 새 심의회 30 일 이내 이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그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싸움에서 임산 중단 서비스 접근을 비롯하여 여성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크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연방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뉴욕의 여성은 항상 자신의 몸을 제어할 기본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8 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점화되었던 여성의 권리를 위한 성화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의 당선 기록을 보여준 선거 덕분에 저는 주 상원을 지휘했으며 마침내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제정하여 우리 위대한 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획기적인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기념일인 오늘 행동을 취하며 40 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던 보호책을 번복한 대법원의 위협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뉴욕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여성의 완전한 평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은 공공 보건법을 여성의 임신 중단 서비스 접근 불법화를 없애고 수술을 하는 의사를 보호하도록 개정합니다.

모든 건강 보험 옵션을 이용할 수 있고 응급 피임 및 기타 피임약의 보장을 포함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워싱턴의 공격에 직면하여,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8년 7월에 주지사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응급 피임약, 기타 모든 피임약, 여성용 장치 또는 기타 제품, 공동 보험, 공동 지불금 또는 공제액 없이 한 번에 12개월 분의 피임약을 모두 제공할 것을 보험 회사에 촉구하는 [규정](#)을 집행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뉴욕은 여성의 권리와 선택에 대한 조치를 이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년간 여성 권리에 대한 장애물이 생겼고 우리 주는 뒤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애물을 없애고 조치를 다시 이끌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조치를 취하고 여성 권리를 위한 싸움에서 뉴욕주를 전진하게 하신 제 동료 Heastie 의장과 Cuomo 주지사, 법안 발기인인 Liz Krueger 상원의원, Deborah Glick 하원의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뉴욕이 다시 나라의 진보적 안내자 역할을 할 때입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신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성의 독특한 상황, 의료적 요구사항, 개인의 도덕, 자신의 신체와 복잡하게 관련된 일입니다. 그것이 이 결정을 정부가 아니라 여성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획기적이었던 우리의 임신 중단법 제정은 거의 50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기준에 맞지 않으며 현대 의료 관행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당장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금지한 구식 법 때문에 수많은 뉴욕 여성이 고생했으며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을 넘깁니다. 생식 보건법(RHA)을 제정함으로써 뉴욕은 여성의 생식 보건에 대해 국가를 다시 주도할 것이며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행정부가 여성의 생식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동안 하원 다수당은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 법은 뉴욕 주민이 가족 계획 결정을 스스로 제어하고 그들이 필요한 생식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며 결정에 대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상원의 새 협력자들과 함께 우리는 역사적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기념일에 마침내 이 법안이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하고 법에 제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Deborah J.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여성은 스스로 내린 보건 관련 결정을 존중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은 입법자가 아닌 의료 서비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방해 받지 않고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필수 보호책 통과를 위해 몇 년간 싸운 끝에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오랫동안 횡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그 횡불을 여성 존중과 건강 관련 결정을 할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상원에 넘길 수 있게 되어 매우 신납니다. 주지사님의 지지와 이 법안에 서명하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Gloria Steinem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여성의 힘은 건강할지 말지, 교육 받을지 말지, 집 밖에서 일할지 말지, 얼마나 오래 살지 같은 커다란 결정 요인입니다. 이 힘은 가부장제와 인종 차별 때문에, 어떤 경우는 종교적으로 위장되어 빼앗겼지만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입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통과시킨 Cuomo 주지사님, 뉴욕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법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뉴욕주 법에 성문화할 것이며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앞으로 모든 아이가 사랑받는 상태에서 태어날 권리를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립 생식 보건 조치 기금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Reproductive Health Action Fund)의 **Andrea Miller**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서는 특히 대통령, 미국 의회, 대법원의 적대적인 공격에 맞서 여성이 고급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끊임없이 옹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지사님은 생식 보건법(RHA), 종합 피임 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on Coverage Act, CCCA), 상사 법안(Boss Bill)에 서명하며 임신 중단 치료와 피임에 접근성을 중시하는 진보 중심지로서 뉴욕의 역할을 공고히 했습니다.”

가족계획 엠파이어 스테이트 행동(Planned Parenthood Empire State Acts) 단체의 **Robin Chappelle Golsto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제어할 권리와 생식 보건 서비스 이용 능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누구도 의료 서비스를 과거로 되돌리거나 우리의 권리를 빼앗을 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옹호자와 입법자는 함께 일하여 생식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우리 생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Carl E. Heastie 하원 의장,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의 리더십과 Andrew Cuomo 주지사님의 비전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민 자유 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의 **Donna Lieberman**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여성 권리와 자치권을 보호할 역사적인 투표를 했습니다. 생식 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은 생식 보건 서비스가 기본법임을 인정합니다. 임신 중단을 형사법에서 제거하고 여성 건강을 다루는 법인 공공 보건법에 넣습니다. 해당 법은 여성이 의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를 인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조기 치료까지 확대합니다. 해당 법은 종합 피임

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on Coverage Act)과 함께 여성이 자신의 인생, 신체, 가족에 옳은 것을 결정할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불리한 법원을 만들려는 Trump 행정부의 노력으로 힘을 얻어 나라 주변에서 생식 권리에 대한 공격이 커짐에 따라 뉴욕이 임신 중단법을 개정하여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뉴욕이 전국적으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가 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